

환경미화원 채용 역대 뇌물

광주 광산구청 환경미화원 3명 구속... '잇선' 연루 수사 확대

계약직 '반장' 통장에 2억8900만원 입금

환경미화원 채용을 대가로 역대 뇌물을 받은 광주 광산구청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에게 돈을 건넨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금품을 건넨 뒤 실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나 '잇선' 개입 여부 등을 놓고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또 장씨에게 돈을 건넨 광산구청 일용직 환경미화원 류모(40)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7월 개 환경미화원 채용 알선을 대가로 류씨로부터 41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부터 최근까지 3명으로부터 1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환경미화원 채용을 구청 고위 간부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류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장씨가 자신의 계좌를

통해 류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지 13일 뒤 류씨가 실제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구청 구위 간부 등의 개입 여부를 캐고 있다.

특히 경찰은 장씨가 지난 2008년 7월 개 광산구 송정동의 한 주차장에서 환경미화원 대표격인 반장 박씨에게 채용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조직적인 채용 비리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또 박씨의 통장에 지난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현금과 수표 등 2억8900만원이 입금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이 돈이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서 오간 뇌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거론된 광산구청 고위 간부 등을 조만간 불러 조사하는 등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서 오간 돈의 흐름을 추적 중이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에서 "수년 전에 벌인 돈을 갚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구제역 비상... 긴급 방역 담당군 직원들이 21일 오전부터 담양읍 담양기계공고 앞에서 구제역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화도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경기도 김포 등 내륙지역에서까지 발생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긴급 방역작업에 나섰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밤 중 '햇낙지' 잡아 함평서 40대 2명 실종

목포해경 수색 나서

밤에 갯벌에서 불빛을 이용한 '햇낙지' 잡이를 하던 주민 2명이 실종돼 목포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21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20일 밤 함평군 함평읍 돌머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낙지를 잡으러 갔던 장모(41·함평군 대동면)씨와 류모(46·함평군 학교면)씨 등이 21일 밤까지 연락이 두절된 채 귀가하지 않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일 오후 7시30분께 가족들에게 "낙지를 잡고 있다"고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21일 오전 물이 빠진 갯벌에서 낙지통과 배터리 등 이들의 유류품을 발견하고, 이들이 몰고 온 차량 2대를 해수욕장 주변에서 찾아냈다. 이에 따라 해경은 20일 밤 짙은 안개때문에 이들이 길을 잃고 갯벌에서 실종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경비함정과 헬기, 122구조대 등을 동원, 인근 해상과 섬 등에 대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밤에는 안개가 자주 끼고, 물때도 정확히 알 수 없어 '햇낙지' 잡이가 매우 위험하다"며 "농사를 짓는 장씨 등이 부업으로 낙지를 잡으면서 길을 잃은 것 같다"고

▲햇(불)낙지 잡이=안해도·증도·병풍도 등 신안과 무안의 갯벌에서 햇불을 만든 뒤 간조 때 바다로 나갔다가 밀물을 따라 갯벌에서 빠져나오면서 새물을 먹기 위해 빨 밖으로 나오는 낙지를 손으로 잡는 전통어법. 3~11월까지 매달 음력 초여드레와 스무사흘(8일과 23일), 조류가 가장 약한 조금 후 4~5일간 달빛이 약할 때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햇불 대신 오토바이나 농업용 서치에 배터리를 연결해 불을 밝힌다. 물이 차 있는 고랑을 건너다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으며, 안개로 인해 길을 잃어 익사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협박·갈취 사이비기자 입건

광주동부경찰은 21일 공사현장 관계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모 일간지 간부 허모(59·진도군 진도읍)씨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허씨는 올해 초 진도실내체육관 건설 현장에 있는 자갈이 도면보다 10cm 가량 적게 깔려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N건설 이사 김모(49)씨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광주동부경찰은 21일 공사현장 관계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모 일간지 간부 허모(59·진도군 진도읍)씨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허씨는 올해 초 진도실내체육관 건설 현장에 있는 자갈이 도면보다 10cm 가량 적게 깔려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N건설 이사 김모(49)씨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초임 연봉 3000만원...박사도 지원

미화원 채용비리 왜?

환경미화원 채용에 뒷돈까지 동원되는 이유는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이다. 신분이 보장(정년 59세)돼 안정적인 데다 연봉도 초임 기준 3000만원이 넘는 정도로 고임금이라는 점이 비정규직이나 실업자 등에게 매력적이다.

최근 박사학위 소지자 등 고학력자들까지 몰려들 만큼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도 경쟁률을 높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기존의 '청소부'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도시정결을 담당하는 당연한 직업으로 자리잡아 신규 채용 때마다 잡음이 일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지난해 10월 광주시 북구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응시원서 접수에는 10명 모집에 110명(남 102명, 여 8명)이 접수해 11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원자들의 학력도 대졸 또는 전문대졸 이상이 46.4%인 51명으로 나타났다. 응시자 중에는 육군 대위 전역자와 함께 전직 교정직 공무원, 현역 럭비 코치, 유아보육사, 박사 학위 소지자, 건설기계 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등도 포함돼 있었다.

환경미화원은 경쟁률이 높은데 비해 체력검정시험과 면접만으로 뽑는 등 채용과정은 단순해 비리가 개입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 경찰의 분석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상습 변태 성폭행·강도 30대 유기징역 상한 25년 형 선고

광주지법, 전자발찌 부착도

일가족을 한 방에 가두고 옆방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70대 노부부를 폭행해 금품을 빼앗는 등 상습적으로 변태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벌인 '인면수심'의 30대에 대해 법원이 유기징역 상한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1일 성폭행과 강도 상해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 대해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 가능하게 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

감시(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9월 광주시 북구 모 아파트에서 A(16)양을 성폭행한 뒤 A양과 할머니, 여동생 2명을 한 방에 가두고 옆방에서 A양의 어머니를 성폭행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성폭행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자위행위를 강요한 뒤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극히 변태적이고 대범한 범행을 저질렀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백도 해상 화물선 충돌 1척 침몰

선원 10명은 구조

지난 20일 밤 10시15분께 여수시 삼산면 백도 남동쪽 16km 해상에서 770t급 부산선적 화물선 '해급퍼시픽호'(선장 천모·58)와 3만5000t급 중국선적 화물선 '천유양호'(선장 왕모·40)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해급퍼시픽호가 수심 80m 아래로 침몰했다. 갑판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선원 10명은 사고 해역 인근을 지나던 여수해경 경비정에 의해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아스팔트유 1100t이 실린 해급퍼시픽호는 이중선체 구조로 돼 있어 기름 유출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급퍼시픽호는 울산항을 출발해 제주항으로 가던 중이었다. 천유양호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양측 화물선 선장과 선원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유무를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남편 사망 슬픔에...

70대 할머니 화장터서 숨져

지난 20일 오후 1시께 광주시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 화장터에서 남편의 화장을 지켜보던 송모(여·71·무안군 운남면)씨가 갑자기 실신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송씨는 지난해 10월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을 해오던 남편이 사흘 전 숨지자 매우 슬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송씨가 40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아왔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숨어 있던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김모(30·광주시 북구 용봉동)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 모 대학교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A(34)씨의 용변 보는 소리를 몰래 엿듣다가 화장실 옆 칸막이 틈새로 남성용 신발이 보이는 것을 이상히 여긴 A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것.

○경찰에서 김씨는 "여성의 용변 보는 소리가 듣고 싶어 들어갔을 뿐"이라며 "몰래 훑쳐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변명.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방문학습지 교사 및 지점장, 팀장급 / 학원장 및 강사, 상담직원 / 교육사업 창업준비자 대상

하늘교육 입시 정책 분석 및 사업 전략 설명회

4월 27일(화) 오전 11시 광주 상공회의소 (광주 지하철 10선 농협빌딩 3층) (주)하늘교육 참가 예약 www.edusky.co.kr

입시정책 분석

- 1. 2010년 입시 정책 분석 (교육부 발표)
- 2. 2010년 입시 정책 분석 (교육부 발표)
- 3. 2010년 입시 정책 분석 (교육부 발표)
- 4. 2010년 입시 정책 분석 (교육부 발표)
- 5. 2010년 입시 정책 분석 (교육부 발표)

사업 전략 설명

- 1. (주)하늘교육의 사업 전략
- 2. (주)하늘교육의 사업 전략
- 3. (주)하늘교육의 사업 전략
- 4. (주)하늘교육의 사업 전략
- 5. (주)하늘교육의 사업 전략

입시정책 분석

- 1. (주)하늘교육의 사업 전략
- 2. (주)하늘교육의 사업 전략
- 3. (주)하늘교육의 사업 전략
- 4. (주)하늘교육의 사업 전략
- 5. (주)하늘교육의 사업 전략

(주)하늘교육 | 전화: 02-701-3300